

미야모토 무사시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1584-1645)의 생애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리마국(지금의 효고현)에서 태어난 무사시는 13 세 때 아리마 기헤이라는 검객과 싸워 이긴 것을 시작으로 29 세까지 60 번의 결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각지에 있는 검객에게 결투를 신청하여 승리했으며, 두 자루의 칼을 동시에 사용해서 싸우는 독자적인 기술로 자신의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1614~1615 년에 펼쳐진 오사카 전투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와 대치하는 도요토미 히데요리(1593-1615)를 도왔으며, 1637 년, 시마바라의 난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의 진압에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확실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말년의 무사시

무사시와 구마모토의 관계는 1640 년에 구마모토번 호소카와 가문의 초대 번주였던 호소카와 다다토시가 손님으로 무사시를 구마모토에 초대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무렵 이미 50 대 후반의 나이였던 무사시는 명상과 회화(무사시는 수묵화와 서예에도 능통했습니다), 저술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무사시는 구마모토의 서쪽에 있는 레이간도 동굴에서 은거하며 『고린노쇼(五輪書, 오륜서)』를 집필했습니다. 『고린노쇼』란, ‘地’, ‘水’, ‘火’, ‘風’, ‘空’ 총 5 개의 제목으로 검술과 삶의 철학을 저술한 작품입니다. 무사시는 1645 년에 이 책을 완성한 후, 같은 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제자 중 한 명인 데라오 마고노조에게 원고를 건넸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죽어도 주군을 지켜볼 수 있도록 구마모토로 이어지는 길에 갑옷을 입고 서 있는 상태로 매장되었다고 합니다.